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내용에 대한 분석

이화연

(명지대학교)

Lee, Hwa-yeon. 2009. An Analysis of Cultural Contents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7(4). 143-15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ltural contents of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cultural contents of English textbooks in Korea have been changed in a positive way but still need to be improv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spiritual' culture occupied 67% of the topics in the English textbooks. Second, when the textbooks were analyzed in terms of nationality, 'neutral' culture showed the highest distribution in Korea. Especially, the distribution rates of 'neutral' culture and 'British and American' cultures were 80% and 3% respectively in the textbooks. This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contents of 'British and American' cultures were not enough to learn English adequately. Third, English textbooks in Korea have shown various cultures of other countries, which attract the interests of students. The cultural information of Korean English textbooks is presented in the effective ways. It is suggested that English textbooks should play an essential role in providing students with various cultural information.

Key Words: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 cultural contents, types of culture, British and American cultures

1. 머리말

언어는 인간이 지닌 고유한 문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이며 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며,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배경이 되는 문화를 함께 배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Brown(2007)도 문화와 언어는 서로 복잡하게 얹혀 있으며 각각의 요소가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고 있다.

이렇듯 어떤 특정 목표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목표언어의 문화를 아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외국어 교육을 하는 이유는 목표 언어를 적절히 구사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 7차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 교육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2008)에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세계적인 안목을 기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속으로 인재의 활동 범위를 확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외국어 교육에서 그 목표언어의 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 속에서 영어를 직접적인 체험 속에서 학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영어 교과서가 갖는 의미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역시 영어 교과서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영어 교과서에 대한 평가와 영어교육 교사들의 기대에는 아직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호와 김현옥(2007)의 연구는 현행 교과서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300명의 현직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것이었다. 이 조사에서 94.05%의 교사들은 중등교육에서 영미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영미 문화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91.11%의 교사들이 그들 자신도 영미 문화교육을 더 받아야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현행 영어 교과서 및 지도서가 영어권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 적당한가라는 설문에 81.92%의 교사가 교과서가 영미문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의 최전선인 현직 영어교사들의 이런 목소리는 현행 영어 교과서가 문화교육의 측면에서 보완점이 절실하며, 그 문화교육을 효율적으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영어 교과서의 개선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행 영어 교과서의 문화내용에 대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5종을 대상으로 교과서에 포함된 문화내용에 대해 배경 국가 별, 문화 유형 별 분석 뿐 아니라, 소개된 문화내용의 구성 방법, 그리고 문화내용의 소재 선택에 이르기까지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EFL 학습조건에서 객관적이고 올바른 문화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균형 잡힌 영어 교과서의 제작에 일조하는데 이 논문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문헌연구

언어와 문화는 서로를 반영하고 종속되어 있는 역동적인 관계를 맷고 있다. 따라서 영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이 배제될 때 그것은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어 교육에서 그 목표어의 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문화교육을 우리는 대부분 따로 교수를 받기 보다는 수업 내에서 교과서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Marckwardt(1981)도 외국어 교과서를 선택할 때 문화교육의 내용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교과서가 특징적이고 중요한 외국의 문화현상을 잘 다루어야 하며, 또 불확실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국어와 목표어의 문화적 요소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잘 다루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다양한 문화 표현 속에 문화내용이 함축되어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문화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교과서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중,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화적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현정은과 김현숙(2002)은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4종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의 국적별 분석, 주제별 분석, 그리고 한국인과 영미인의 의식구조가 어떻게 영어 교과서에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 주목 할 점은 각 교과서의 출판사에 따라 문화 소재의 비율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영어 교과서에서 영미 문화의 분포가 낮을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 문화의 비율도 거의 전무하다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우리가 영어 교과서의 편찬에 있어서 영어 학습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빈과 구소영(2005)은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9종을 대상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서부터 언어 재료로 추가된 문화 항목이 각각의 교과서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교사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우선 교사가 가치관과 문화관을 확고히 정립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문화 지도라는 것은 특정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도록 지도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문화 배경의 국가별 분석에서, 교과서의 문화내용 속의 제3 문화권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최소라(2007)는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14종의 단원을 문화 소재 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연구 대상의 모든 교과서에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화 소재가 비교적 고르게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화 배경이 되는 국가 별 분석에서는 영미권 문화의 비중은 교과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그 외의 나라들, 예를 들어 필리핀과 같이 영어를 제2 언어로 쓰는 공용어 국가나 유럽과 같은 제3 문화권에 대한 교과

서의 문화내용의 비율은 전체의 14%라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 제3 문화권에 대한 편중된 시각을 지적했다.

한국의 영어 교과서를 다른 나라의 영어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비교 대상 국가가 주로 우리와 같이 영어를 EFL 상황에서 학습하는 일본, 중국, 대만 등이었다. 정형륜(2005)은 한국과 일본, 대만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화내용을 분석하였다. 각국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 유형별 분석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영어 교과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신문화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제언 부분에서 영어 교육의 밀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영미문화의 교육이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수법과 자료를 준비하여 학생 스스로가 흥미를 갖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영어의 교육과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분석으로는 장복명(2001)의 한국과 일본의 영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논문은 양국의 교육과정 상에 나타난 소재, 문화, 언어, 어휘 등의 언어 재료의 내용을 비교했고, 한국과 일본의 영어교육 정책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런 학문적 고찰은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정책의 방향에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경란(2004)은 우리 문화교육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수자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편찬자까지도 시대적 요구에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3종을 대상으로, 언어 이면의 문화적 의미, 언어와 문화의 관계, 문화 교육의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영어 교과서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즉, 교과서의 편찬자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함을 강조하고, 그 나라 고유의 특징적이고도 보편적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또한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여 현실감 있고 다양한 문화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 선행 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던 문화 내용의 분석을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다시 말해,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에 포함된 문화내용에 대한 배경 국가 별 분석과 문화 유형 별 분석, 교과서에 소개된 문화내용의 구성 방법에 대한 분석, 그리고 문화내용의 소재 선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문화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더불어 이 연구 결과가 앞으로의 영어 교과서의 제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이 논문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내용 및 분석

본 연구는 한국의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내용을 분석하여, 영어교육의

중요한 요소인 문화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영어 교육 현장에서 외국의 문화를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내의 문화내용의 분석 기준 및 방법은 Chastain(1976)과 Finocchiaro & Bonomo (1973)의 문화유형별 기준을 사용했다. 이것은 문화의 양상을 자아, 학교와 사회생활, 확대된 공동체와 우리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 환경으로 점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물질문화, 행동문화, 정신문화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세분화했다.

둘째, 교과서에 포함된 문화내용을 배경국가별로 분석한다. 문화를 배우는 올바른 방법은 각각의 문화를 배우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문화를 비교하여, 치우침이 없는 상대적인 가치로서 문화를 보는 눈을 길러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문화내용들이 그 국적별 배경을 어디에 두느냐를 살펴보아야 한다. 문화내용의 국가별 배경에는 자국문화, 영미문화, 기타 국가 문화, 보편 문화, 그리고 자국과 영미문화 비교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1. 배경 국가별 문화 분석 기준

분석기준	배경
자국문화	자국의 고유한 문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국의 역사, 지역, 위인, 음식, 예술, 행사 등
영미문화	영미권 문화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
기타국가 문화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기타국가의 문화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
보편문화	국적을 초월한 인간 보편의 문화적 내용
자국과 영미문화 비교	전체 단원의 내용이 자국과 영미 문화를 비교 대조하는 것

문화 유형별 분석의 기준은 여러 선행 연구(임병빈과 구소영, 2002; 정형륜, 2005; 최소라, 2007)의 연구 분석에서 문화 유형별 분석의 기준으로 사용된 Chastain(1976)과 Finocchiaro & Bonomo(1973)의 문화 항목을 중심으로 물질문화, 행동문화, 정신문화로 분류하였다. 이 세 가지 항목을 표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문화 유형과 하위 항목

문화유형	하위항목	내용
물질문화	문화 · 풍경 · 유적지 의 · 식 · 주	건물, 풍경, 지명, 유적지, 박물관, 교량, 화폐 등 음식, 음료, 소품, 주택, 주거환경, 가구 등

	자연	동식물, 날씨, 지형
	교통 · 통신 · 과학	대중매체, 기구, 예술품 등
	법 · 규범 · 범죄	사회제도, 법률, 규칙, 금기 등
	인사 · 소개	식사, 전화 등의 예절
	가족 · 일상생활	결혼, 건강, 명절 등
행동문화	교육 · 학생활동	학교, 교우관계
	사회생활	쇼핑, 길 묻기 등
	행동유형	에티켓, 관습, 풍속, 관례 등
	여가활동	취미, 여행, 운동 등
	가치관과 국민성	봉사, 환경 보존 등
	역사 및 종교	신앙, 신화, 전설, 미신, 야화 등
정신문화	언어 및 신체언어	손짓, 광고, 유행어, 몸짓, 관용표현, 속담 등
	문화 예술	시, 소설, 음악, 미술, 체육 등
	학문과 교육	정치, 과학, 지리 등

셋째, 한국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 소재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대상이 되는 영어 교과서는 총 5권이다. 교육부의 검정을 받은 (주)교학사,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주)도서출판 디딤돌, (주)케이스 등 총 5권의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가 대상이다. 이들 교과서는 5종 모두 「MIDDLE SCHOOL ENGLISH」라는 제목을 공통으로 썼기 때문에, 구별을 위해 출판사 명으로 분류 기준을 대신한다.

3.1 문화 유형 별 분석

이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총 5권의 영어 교과서의 본문속의 문화내용에 따른 문화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영어교과서의 문화 유형별 분석

	(주)교학사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주)케이스	(주)디딤돌
물질문화	3			12	
행동문화	6,7	1,2,3,5	2,4,5	4,5,6	1,3,5 6,7,8
정신문화	1,2,4,5,8 9,10,11,12	4,6,7,8 9,10,11,12	1,3,6,7,8 9,10,11,12	1,2,3,7 8,9,10,11	2,4,9,10 11,12,13

3.1.1 물질문화

한국의 영어 교과서의 문화 유형별로 분석된 내용은 위의 표 2와 같다. (주)교학사의 영어 교과서 제 3과 “New York! New York!”에서는 세계의 유명한 도시인 미국의 ‘New York’과 그 도시의 중요한 부분인 UN빌딩, 자유의 여신상 등을 소개하여 물질문화로 분류했다. (주)케이스의 영어 교과서의 물질문화는 제 12과 “Left Out in the Cold”에서 다루었다. 이 단원은 남극의 풍경과 동물들을 설명하여 추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황제 펭귄의 생명력을 예로 들었다. (주)천재교육, (주)지학사, (주)디딤돌의 영어 교과서에서는 물질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3.1.2 행동문화

(주)교학사의 행동문화는 제 6과 “Safety in the Home”에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그에 대한 대책을 다루었다. 이 과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사고를 전기사고, 가스사고, 화재 등으로 분류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칙들과 사고 시 행동 대책들 등 개인 생활의 내용을 다루어, 학생들의 이해를 돋고 있다. (주)지학사의 행동문화는 제 2과 “Good Study Habits”에서 좋은 공부 습관을 갖는 것에 대해 다루며,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주변 환경이나 시간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주)천재교육의 행동문화는 제 2과 “Healthy Eating and Physical Fitness”에서 좋은 식습관과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는 것이라는 개인생활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 (주)케이스의 행동문화는 제 6과 “Running a Class Meeting”을 통해 회의를 주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학교생활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생활의 항목에 포함되므로 행동문화로 분류하였다. (주)디딤돌의 행동문화는 제 1과 “I Can’t Live Without Music”에서 다루었는데,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요즘 널리 쓰이고 있는 MP3 등의 매체와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3.1.3 정신문화

(주)교학사의 제 12과 “An Amazing Rescue in the Air”에서는 모험과 도전 정신을 소재로 했으므로 정신문화로 분류했다. (주)지학사의 교과서에서 정신문화로 분류된 과인 제 11과 “Physical or Mental Practice?”에서는 육체적인 운동 연습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운동 연습을 통해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다소 독특한 소재를 다루었다.

(주)천재교육의 제 7과 “Cultural Understanding”에서는 나라마다 다른 제스처의 설명을 통해 그 나라의 독특한 몸짓 언어를 다루었는데, 다음의 예문은 그 내용 중 일부이다.

- If someone moves his head up and down, what does it mean to you, "no" or "yes"? Nodding the head up and down means "yes"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but "no" in Greece and Turkey (p. 138).

(주)케이스의 정신문화로 분류된 과 중 제 10과 “The Incredible Life of Stephen Hawking”은 신체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나 과학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스테판 호킹 박사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는 전기에 해당되어 정신문화에 포함했다. (주)디딤돌의 제 12과 “Land or Wetlands?”에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습지의 소중함과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 유형을 분석해보면 정신문화> 행동문화> 물질문화> 순으로 반영되어 있다. 즉, 5권의 영어 교과서 속의 총 61개 단원 중에서 정신문화는 41개 단원을 차지하며 67%의 높은 반영률을 보였다. 행동문화는 18개 단원을 차지하여 30%의 반영률을 보였다. 물질문화에 대한 반영률은 단지 2개 단원으로 오직 3%를 차지하여 미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주)디딤돌의 교과서에서는 물질문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것은 문화 소재의 지나친 편중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 문화 배경별 단원 수와 비율

	물질문화	행동문화	정신문화
(주)교학사	1(8%)	2(17%)	9(75%)
(주)지학사	—	4(33%)	8(67%)
(주)천재교육	—	3(25%)	9(75%)
(주)케이스	1(8%)	3(25%)	8(67%)
(주)디딤돌	—	6(46%)	7(54%)
합계	2(3%)	18(30%)	41(67%)

3.2 문화 배경 별 분석

각 영어교과서의 문화 배경 별 분석의 내용은 표 4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문화가 8%, 영미 문화가 3%, 기타 문화가 7%, 보편 문화가 80%, 그리고 한국과 영미 문화 비교가 2%로, 한국의 영어 교과서에서는 보편 문화가 교과서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분석 내용을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반영된 문화 분석을 한 현정은과 김현숙 (2002)의 논문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한국 문화와 영미 문화는 각각 14%와 7%였던 비율이 그 절반 정도로 감소한 반면에, 보편 문화는 10% 정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 5. 영어교과서의 배경 국가별 문화내용

	K	E	O	U	K-E
(주)교학사	1	2	—	9	—

(주)지학사	2	—	—	9	1
(주)천재교육	—	—	2	10	—
(주)케이스	1	—	2	9	—
(주)디딤돌	1	—	—	12	—
합계	5(8%)	2(3%)	4(7%)	49(80%)	1(2%)

* K: 한국문화 E: 영미문화 O: 기타문화 U: 보편문화

K-E: 한국과 영미 문화 비교

흥미로운 것은 현정은과 김현숙(2002)의 논문 결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타 문화의 내용이 7%, 그리고 한국과 영미 문화 비교의 내용이 2% 포함되어 있어, 이 두 영역이 새로 등장한 문화적 요소임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외국문화 반영 비율이 평균 10.4%에서 12%로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의 연구 분석 대상인 5종의 영어 교과서는 대부분 특정 국가의 문화가 아닌 보편적 문화를 다루었는데 반해, 영미 문화의 반영 비율은 3%에 불과하여 영어 교과서가 목표어의 문화를 배우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미흡한 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3.2.1 한국 문화

한국 문화, 영미 문화, 기타 문화, 보편 문화, 한국과 영미 문화 비교를 다룬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문화를 (주)교학사의 교과서에서는 제 4단원 “Early Kites and Traditional Korean Kites”에서 한국의 전통 연을 소재로 하고 있었으며, (주)지학사의 교과서에서는 제 3과 “Korea’s Pride: Taekwondo”와 제 12과 “Korea Overseas Volunteers”에서 각각 한국의 고유 운동인 태권도와 세계 속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천재교육은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주)케이스는 제 5과 “Traditional Korean Marriage Customs”에서 한국의 전통 혼례에 관한 소재를 다루었다. 또한 (주)디딤돌에서는 제 13과 “The Secrets of Cheomseongdae”에서 한국 전통의 과학 유산인 첨성대에 대해 소개했다. 아래 예시는 그 중 (주)디딤돌의 제 13과 “The Secrets of Cheomseongdae”의 일부분으로, 한국의 첨성대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체 관측 기구인 것을 밝히며 학생들에게 첨성대의 특징과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a. Cheomseongdae is known as the oldest standing astronomical observatory. All the other buildings built in those days were destroyed and later built again. What then is the secret of it being able to keep its original shape even after 1300 years? (p. 265)

3.2.2 영미 문화

(주)교학사 교과서에서는 제 2과 “Fun with Proverbs”와 제 3과 “New York! New York!”에서 각각 영국과 미국의 속담과 미국의 도시 뉴욕을 소개 하고 있다.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주)케이스, (주)디딤돌의 4종의 영어 교과서에서는 영미 고유의 문화를 따로 소개하는 단원이 없었다. 아래 예시는 (주)교학사 교과서의 제 3과 “New York! New York!”의 일부분이다.

- b. The city is always changing. You can hear the noise of buildings going up or going down all the time. Cars and buses stop and start, and police officers blow whistles at the drivers. WALK and DON'T WALK signs go on and off, and people run across streets and avenues (p. 62).

3.2.3 보편 문화

보편 문화는 각 5종의 영어 교과서의 문화내용의 80%에 해당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각 주제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단원 별로 정리하였다. 다음의 표 5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

표 6. 한국 영어교과서의 보편적 배경의 문화내용

(주)교학사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주)케이스	(주)디딤돌
1단원: The World of Nature	1단원: The Hana Monthly	2단원 Healthy Eating and Physical Fitness	1단원: As We Enter Information Age	1단원: I Can't Live Without Music
5단원 Cyberspace	2단원: Good Study Habits	3단원 We're All One	2단원 Habitat and Greenpeace	2단원 The Story Louis Braille
6단원 :Safety in the Home	5단원 Control Your Weight	4단원 Ms. Wise, What Should I Do?	4단원:Unhealthy Habits	3단원: Baseball My Brother and Me
7단원: My Pig, My Pet	6단원: Supply and Demand	5단원 How MP3 Music Files Work	6단원: Running a Class Meeting	4단원 Newspapers and Facts
8단원: Painting and Sculpture	7단원 Action Speak Louder than Words	6단원 Are You Going to Help Me?	8단원: Foreign Language Skills for the Global Market	5단원: Growing Pains
9단원: Fun with Science	8단원 Ella Grasso: A Mother and a Governor	8단원: What Good is a Weed?	9단원: I Like to Read Poems	6단원 The Princess Saves the Prince!
10단원: A News Story	9단원 The Shepherd and the Princess	9단원 It's Such a Pleasure for Me to Learn	10단원 The Incredible Life of Stenphen	7단원 Cartoon 21

11단원 The Martians Are Coming!	10단원 Colors Talk	Hawking
12단원 An Amazing Rescue in the Air	11단원: Genetic Engineering	8단원 The Amazing Amanda
	12단원: Left Out in the Cold	9단원: This Is Just to Say
		10단원: The Reason Why
		11단원: Buy One, Get One Free?
		12단원: Land or Wetlands?

보편 문화의 내용은 과학과 우주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주)교학사 교과서의 제 5과 ‘Cyberspace’는 정보통신의 새로운 세상을 소재로 하여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주)천재교육의 제 5단원, “How MP3 Music Files Work”와 (주)케이스의 제 10단원, “The Incredible Life of Stephen Hawking” 또한 이 범주에 속한다. 또한 환경 보호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다. 아래의 예시는 (주)지학사의 6과 “Supply and Demand”의 경제 시장의 원리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내용 중 일부이다.

- c. By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the equilibrium price is the best price for the goods. The consumers and the producers will agree on this price because it is the only price that makes them both feel comfortable (p. 116).

3.2.4 기타지역 문화

기타지역 문화는 (주)천재교육과 (주)케이스에서만 각각 2개의 단원씩 총 4개의 단원이 소개되어 전체의 7%에 해당되는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정은과 김현숙 (2002)의 연구에서는 기타지역 문화의 내용이 0% 인 것에 비하면 다양한 문화 배경의 소재가 늘고 있다는 데 의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주)교학사, (주)지학사, (주)디딤돌의 교과서에서는 기타지역 문화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점은 출판사 별로 그 구성에 있어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예시는 (주)케이스 교과서의 제 3과 “Who Are the Japanese?”의 내용 중 일부로, 이 단원은 이웃 나라 일본의 전통 풍습과 국민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이해를 돋는 내용이었다.

d.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may be materialistic, but religion still plays an important role in daily life. Many Japanese view religion as a practical extension of everyday life, and they find it quite natural to turn to whichever religion covers the area of spiritual life in question (p. 63).

3.2.5 한국과 영미 문화 비교

한국과 영미 문화 비교를 다룬 교과서는 (주)지학사의 제 4과 “Different People, Different Customs”가 유일한 것이었고, 다른 4종의 교과서에서는 한국과 영미 문화 비교가 다뤄지지 않았다. 이 과는 한국과 미국의 여행자가 서로 길 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문화적 차이점을 설명한 내용이다. 아래 예시는 그 내용 중 일부이다.

e. Foreign tourists often get lost in Korea and Japan because most streets there don't have names; in Korea or Japan, people use landmarks in their directions instead of street names. In the countryside of the American Midwest, there are not usually many landmarks; in many places there are no towns or buildings for miles. Instead of landmarks, people will tell you directions and distances. (p. 76)

앞서 설명한 대로 한국의 영어 교과서 중 한국과 영미 문화 비교를 다룬 교과서는 (주)지학사의 제 4과가 유일한 것이었다. 이 비율은 전체의 2%에 불과하여, 일본 영어교과서의 문화내용을 연구한 김승희와 이화연(2009)의 결과에서 ‘일본과 영미 문화 비교’의 비율이 9%인 점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영어 교과서의 문화내용 분석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 유형 별 분석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신문화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의 기준이 상위로 갈수록 정신문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물질문화와 행동문화의 비율이 각각 3%와 30%로 심한 차등을 보여,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유형의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영어 교과서의 문화 배경 별 분석을 살펴보면, 보편 문화의 내용이 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반면에 자국 문화, 영미 문화, 기타지역 문화, 그리고 자국과 영미문화의 비교의 비율은 모두 합산해도 20%에 그쳐 다양한 문화내용이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EFL 학습 환경에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영어 교과서의 문화내용을 연구한 김승희와 이화연(2009)에 의하면 일본의 영어 교과서는 보편 문화 비율이 42%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그 외의 문화 배경의 내용이 합하여 58%에 달해, 한국의 영어 교과서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화 배경을 소재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영어 교과서의 문화 배경의 비율은 자국 문화, 영미 문화, 기타지역 문화, 그리고 자국과 영미문화의 비교의 비율이 각각 18%, 7%, 24%, 9%로, 한국 영어 교과서의 각각의 비율 8%, 3%, 7%, 2%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김승희와 이화연, 2009). 특이할만한 점은 한국과 일본의 영어 교과서 모두 영미 문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영어 교과서가 목표언어의 문화를 공부하는 자료로는 미흡하다고 해석된다.

4. 결론

이 논문은 한국의 영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화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교육 속의 영어 교육을 지향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5종을 대상으로 문화내용의 종류가 얼마나 객관적인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지, 교과서의 문화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시된 문화내용이 학습자에게 문화의 차등이 아닌 문화의 차이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영어 교과서의 문화적 내용을 문화 유형 별과 문화 배경 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영어 교과서의 문화 유형 별 분석에 있어서 정신문화, 물질문화, 그리고 행동문화의 비율은 각각 전체의 67%, 3%, 그리고 30%를 차지하여 문화 유형에 있어서의 격심한 차이와 불균형을 나타냈다. 또한 영어 교과서의 문화 배경 별 분석을 살펴보면, 보편 문화의 내용이 80%인 반면에 자국 문화, 영미 문화, 기타지역 문화, 그리고 자국과 영미문화의 비교의 비율은 모두 합해도 20%에 불과하여 영어 교과서가 다양한 문화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목표 언어인 영어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영미 문화내용을 확대시키는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자국 문화와 자국과 영미문화의 비교의 내용을 확충하여, EFL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이 가질 수 있는 자국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고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학습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또한 기타지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문화의 차이가 차등이 아니라는 것을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또 다양하고도 범세계적인 시각을 기르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영어 학습에 어려움이 없는 학습자라 할지라도 문화적 열등감을 갖거나 영미문화 외의 문화를 경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외국어 학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영어 교과서가 문화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교과서 제도가 좀 더 탄력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교과서

의 검정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 자유발행제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심사 제도와 여론 수렴의 과정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김두정, 1990). 즉 교과서 챕터에 있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이 존중되는 여론 수렴의 과정이 있다면 훨씬 능률적이고 진정한 학생 중심의 학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영어 교과서가 우리나라의 영어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의 구성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전문 출판사의 전문 성에 바탕을 두고 제작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김진숙, 1999).

셋째, 영어 담당 교사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연수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EFL 학습 조건에서 효율적인 영어의 문화교육을 위해 교사들의 역할은 절대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영어교사들에게 지속적인 문화교육 연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의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일 것이다.

영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가 직접적 가치를 생산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영어 교과서의 방향이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의 네 가지 언어 능력 외에 문화 내용 또한 언어 능력으로 포함시킨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것이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진정한 학습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천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는 다양한 문화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하고, 그 내용은 정확하고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는 능동적인 틀을 갖추어야 한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가 영어 교과서 내의 문화내용의 개선과 바람직한 영어 교과서 제작의 기준 마련, 그리고 영어 교과서에 대한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중학교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용진 외. (2003).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주)디딤돌.
- 김진숙. (1999).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 비교. 비교교육연구. 9(1), 109-134.
- 김두정. (1990). 외국의 교과서제도와 우리의 현실. 중등우리교육. 1(2), 61-65.
- 심명호 외. (2003). MIDDLE SCHOOL ENGLISH 3 . 서울: (주)교학사.
- 이병민 외. (2003). MIDDLE SCHOOL ENGLISH II. 서울: (주)천재교육.
- 이성호 외. (2003).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주)지학사.
- 이홍수 외. (2003).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주)케이스.

- 임병빈, 구소영. (2005).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소재 분석과 지도방안. *영어어문교육*. 11(1), 155-177.
- 장복명. (2001). 한국과 일본의 영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현대영어교육*. 2, 83-101.
- 정형륜. (2005). 한국·일본·대만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문화내용 분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란. (2004).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미문화 연구. *동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소라. (2007).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적 내용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정은, 김현숙. (2002).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반영된 문화 분석. *영어어문교육*. 14(2), 433-453.
- 한호, 김현옥. (2007). 영미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영어어문교육*. 13(4), 271-292.
-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and teaching*. New York: Pearson Education, Inc.
- Chastain, K. (1976). *Developing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York: Prentice Hall.
- Finocchiaro, M. & Bonomo, M. (1973). *The foreign language learner A guide for teacher*. New York: Regents.

이화연

120-762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2)300-0535
 이메일: hwlee@mju.ac.kr

Received: 1 July, 2009

Revised: 19 December, 2009

Accepted: 22 December, 2009